

6기 전여대협

▶ 월별 활동

- 2월 임시중앙 집행 김양부 열사 추경
- 3월 1일 400차 수요시위 참가
- 4월 전여대협 총회 진행
- 7 분성폭력 학의 재개정 공대위 구성 시도, 서울지역 모임 진행, 카페 활동
- 5월 봄농활, 전여대협 출범식 부산대 진행, 여학일꾼 한미당 함께 진행 /
- 6월 여름휴가
- 7월 전여대협 기치촌 활동
- 수련회 전국대사 진행
- 8월 전여대협 통일실태 활동, 여성통일한미당 한양대에서 진행-이름 계기로 여성통일한미당 건설하게 됨
- 9월 지역별 릴레이 수요시위 진행
- 한미 성폭력 관련 사이버 토론
- 12월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일본에서 진행, 전여대협 대표 참가

▶ 조직원황

- 1. 총회 - 1회
- 2. 중앙상임위 개최
- 서울지역 대표 없음
- 중앙여대협 진권위원장 서원대 총여학생회 김경희(?)
- 남녀대협 의장 조진대 총여학생회장 정영란
- 대경여대협을 대표해 영남대 총여학생회장 이선화
- 부경여대협을 대표해 부산대 총여학생회장 조이현인
- 3 지역별 총여학생회 현황
- 서울-경희대(진아), 건국대(나진숙), 경기대(김미연), 명지대, 한양대, 감신대
- 충청지역-서원대, 청주대, 고려대
- 경주전남지역-전남대(유정숙), 조진대(정영란), 목포대
- 대구경북지역-영남대(이선화), 안동대(박준순), 경북대 주재 김현정
- 부산경남지역-부산대(조이현인), 동아대(백윤영), 경남대(김혜정), 창원대(최희순), 경상대, 울산대
- 제주지역-제주대
- 경기남부-한신대 총학생회 여성국장(이영주)
- *전여대협과 함께 여학생운동을 고민하는 단위들은 거의 총여학생회를 건설하였다.
- 4. 학교별로 여학생운동 조직 현황
- 1) 서울
- 경희대-문리대 여학생회(서원),
- 경기대 1학여대협
- 동아대-법대 여학생회
- 영남대-정경대 여학생회, 이과대 여학생회, 법대 여학생회

▶ 특별사항

- 자여론 문서화
- 한총련 무대에서 출범식 진행

발을 하였다.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탄압으로 막아내고 있다. 한 예로 우리는 3월 1일 400차 수요집회를 기억한다. 너무도 당연한 요구를 하였으며 또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었던 3월 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마치고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전두평경을 동원해 송풍도 불어 새까맣게 가로막았던 것이다. 독립만세를 외쳤던 일제 치하 3월 1일 그 때의 결의와 각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탄압을 뚫어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만큼 이들의 모순을 보이고 김대중 정부인 것이다.

그리고 일본놈들은 다시 한번 한반도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며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 심지어 한미일 군사조약이나 나라의 운명사상을 3대까지 개방시키는 과정에서 일본놈들은 그러한 자국의 생각들을 역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놈들에게 더 이상의 잘못된 역사를 그들로 이어나가게 놓아두어선 안 된다. 그러하여 우리는 이 땅에 외세의 침략적 행각들을 더 이상 자행하게 두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과거의 역사를 물고개 세우는 투쟁을 더욱 뜨겁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여성민중의 삶은 억압과 차별의 도끼로 돌아앉은 외세의 그림자를 쫓아버리고 이 땅에 맑은 햇살이 드리워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투쟁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여대협 50년 여학도는 언제나 2천만 여성민중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지기인 만큼 2000년 그 어느 해보다 결의높고 뜨겁게 투쟁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는데,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저지하는데, 모두 성취가 되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공식 사과해상하라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되지 않는 집대거 국민의 정부 김대중 경진 퇴진시키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뇌우침 없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원범이나 일본놈 끝장내자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6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총회 참가자 일동
 범국민 반미항전의 해 2000년 4월 22일

박한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면서 가정에서부터 민족의 분열과정에까지도 발생하는 재반 사회의 성폭력에 반대하고 여성의 성적가치가 보정될 수 있도록 여성해방의 주춧돌이 되자.
 전여대협 특별결의문

여성은 이성을 생산해내는 어머니로서의 고귀함으로 포장되면서 한편으로는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여성은 남성 이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사회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웃음을 띠는 인형으로 남성의 성적 분출구로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남성의 성욕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그러기에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은 이해할 수 없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성폭력의 확산이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방관되고 있는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들은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저지인이라 하는 여대생도 예외일 수 없다.
 모교지 장소에서나 출저리 등에서 성폭력은 비밀비밀하게 일어나며, 영남대 음대사건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수, 심지어는 교직원에게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도 빈번하다.

이더 아랍인!
 가정내에서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는 이전 예외로운 일이 되고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성폭력방지법이 비록 존재하지만 아직까진도 성폭력을 범죄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으로 민중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경찰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최근 96년 연대 항쟁의 경우를 보더라도 몇몇 성 인식이 부족한 경찰들의 문제로운 인식될 수 있을 일깨워 주고 있다. 철거민여성이나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웃을 법기는 수단을 범해서 자국에 이물질들 집어넣기까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이다.
 색이빠진 성 인식이 너무나 차있는 경연에 의해 민족의 여성이 외세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가고 있다.
 기치촌이나 미군유류정주부에는 애이론 할 것 없이 여성이면 미군의 성폭력에 희생되고 있으며 급기야 죽음으로써 이어지고

▶ 활동 등 세부 내용

주한미군법적 진상규명과 범미군 처벌 주한미군법거를 위한 전여대협 특별 결의문

미군정이 우리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고 한반도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미군은 허무도 거르지 않고 한국민중을 괴롭혀 왔으며 하루에 5년, 1년에 2000건이라는 주한미군 범죄를 만들었다.
 미군이 해방이후 50년간 한반도 내에 모든 것을 예속화시키면서 식민지 구도를 철저히 벌여내고 있으며 남한 민중들을 다국 교묘로 수탈 당하고 있다.

이 속에서도 미국은 위은 식민통치를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이에 이천만 민중여성들은 민족모순, 계급모순, 그리고 성 모순까지 안고 신음하게 만들었다.

또한 주한미군은 지금 한국을 자신의 식민지라고 여기고 한국민중에게 대한 억압을 계속하고 있다. 유급이 싸와 이기촌, 허주연, 이정숙 씨 그리고 일어난 주한미군의 군복탈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김성희, 서정만 씨 이것은 주한미군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여성민중들의 처지를 극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에서 미제로 위안부 할머니에서 기치촌 여성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의 시기는 일제시대와 다름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보호막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범미군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처벌할 수 없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남한민중, 특히 여성민중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여대협은 김성희, 서정만 씨 살해 진상규명과 범미군 처벌 및 주한미군처벌 투쟁을 힘있게 벌여내는 것은 주한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여성들의 한을 풀고 더 이상 이 땅 여성이 외세에 의하여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정치, 군사, 그리고 교육까지 예속화시키고 있는 2000년 민중의 반미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해방이후 50년간 한반도 내에서 저지른 각종 만행을 보면서 더 이상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며 2천만 여성민중과 4천만 민족과 함께 돌아야 할 존재임을 확인하고 또한 한반도내의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남한에서 미군법적의 모든 근원인 주한미군법거투쟁을 미군이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힘있게 벌여낼 것을 결의한다.

- 김성희, 서정만 씨 살해사건 진상규명과 범미군을 극구 추궁해버리라.
- 주한미군의 보호막인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철폐하라.
- 우리나라 민약의 근원 주한미군을 철거시키자.
- 경제제재, 비리주변 미국놈들 몰아내자.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6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총회 참가자 일동
 범국민 반미항전의 해 2000년 4월 2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 해결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 저지를 위한 전여대협 특별 결의문

9년이라는 기나긴 기간동안의 투쟁을 거듭도 멈추지 않고 전개하고 자신 고통의 전사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역사에 가슴 아픈 자국을 남겼지만 이제 그 자국은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그 자국은 앞으로 역사에 그러한 것을 또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결의가 되어야 한다.

옛 시절, 이 땅의 여성들은 일자리를 한다는 이유로 갖가지 이유로 끌려가고 유린당하고 일본군의 '위안부' 역할을 하게끔 위안소에 배치되고 팔로 팔로 할 수 없는 모욕의 시절이었다. 일본놈들은 우리 민중을 억누르고 억압한 것을 뉘우쳐서 하여 정쟁을 치르며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며 전쟁을 확대해나갔다. 그러나 아무리 먼저 전쟁과 싸울 한 번 결이본 적 없는 나라라 하지만 억압받은 역사 속에서 실수 없이 모두 분개하여 나서 결국은 나라를 되찾고 과거 역사를 청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그러나 해방 후 이 땅은 남과 북으로 갈리고 분단이후 50여년이 지나도록 침략의 여사가 아직도 장신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2000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라도 하는 뜻이 온 민족이 전 세계가 들쭉거렸다. 이남과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나라 민중을 생각하더라도 하는 듯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며 너무나 역결계도 감태중 정부는 2000년 한일간에는 서로들 파드너임을 구속한다면서 먼저 친화를 호창하고 일본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사과 배상의 요청을 먼저 하지 않겠더라는 말

있고 한미행정협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범인이 보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제시대 우리여성의 당하여 했던 성적 수치심이 세 옛기기도 전에 또다시 외세에 의해 성적 강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성폭력의 문제를 이제는 범죄로 바라보아야 한다.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이 보호하기위한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법 적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더불어 성폭력을 온존케하는 인식을 바꾸고 올바른 성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가야 한다.

50년 전 여학도는 여성민중의 인간된 삶을 가로막는 모든 성폭력에 맞서서 선봉에서 투쟁하여 이제는 피해자가 아닌 해결자 또 여성민중과 함께 여성해방의 투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 성폭력규제책의 제정과 올바른 이해에 힘쓰고, 학원내의 잘못된 성 인식을 고치고 올바른 환경을 세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여성에게 가행되는 모든 성폭력의 문제를 폭로하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성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적극참여하여,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사안인 가부장적과 이를 조장하고 이용하는 대성인 정권과 외세 등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일할 것이다.
- 여성민중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주제로 시도를 청년 여학우가 그 선봉에서 서서 투쟁할 것이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6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총회 참가자 일동
 범국민 반미항전의 해 2000년 4월 22일

2000여성통일한미당회신
 보낸날짜 2000년 08월 02일 수요일 낮 2시 50분 28초 +0900 (KST)
 보낸이 <Lee Kyongsok> <KWAW@chililinet> 수신기부여 추가 주소록에 추가
 받는데 <chrijalsw@hanmail.net>

보내주신메일 잘받았습니다.
 여성민중연대한미당으로 행사물 진행시키기에는 여성연합의 조직적 위상에 비추어 어려웠을것입니다.

장소도 학교가 아닌 열린공간에서 했으면 하는대요
 여학우들공동투쟁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일정이 너무 촉박하여현실적으로 진행시키기 어려웠지만 가장큰문제입니다
 다음에 같이할수있는일이 있으면좋겠네요. 그럼 이만

2000년 여성통일한미당 에 대한 회신
 보낸날짜 2000년 08월 09일 수요일 오후 5시 23분 34초 +0900
 보낸이 김정수 <jumson@cwaw.go.kr> 수신기부여 추가 주소록에 추가
 받는데 dafjalsw@hanmail.net

우리 여성특별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관련 사항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련된 각종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의대회나 무대행사 등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여성단체와의

동참여부는 귀 회의회의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성폭력 관련 토론회 합시다.

보낸날짜 2000년 09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02분 56초 +0900 (KST)

보낸이 "Daum카페 전역대협 성폭력 규제 학회 제개정 공대위 운영자" <qstjdvhvrfu@hanmail.net> 수신기부에 추가
주소록에 추가

받은이 "Daum카페 전역대협 성폭력 규제 학회 제개정 공대위 회원" <>

대화방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어봅시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일이지 않습니까?

24일 아침 10시에 모두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대화방을 클릭하면 성폭력이란 주제를 가진 대화방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꼭 좋은 얘기를 나눠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얘기거리를 오늘 중으로 다시 짜주었습니다.

다들 들어와서 서로서로 인사를 나눠주세요!!

별다른일 무거웠던 절망을 뚫살아내 날이두고 후후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한 날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카페 운영자-----

가,
하나. 성폭력규제학회 제개정 투쟁 방향에 대해
들.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셋. 궁극한 상황에 대해서나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등

내용이 좀 짧은가요.

24일 밤늦게 대화방에서 만났습니다.

-----찾김 운영자-----

9월 27일 전국 동시수요집회를 해봅시다.

보낸날짜 2000년 09월 22일 금요일, 낮 12시 47분 05초 +0900 (KST)

보낸이 "Daum카페 전역대협 성폭력 규제 학회 제개정 공대위 운영자" <qstjdvhvrfu@hanmail.net> 수신기부에 추가
주소록에 추가

받은이 "Daum카페 전역대협 성폭력 규제 학회 제개정 공대위 회원" <>

전역대협 성폭력 규제 학회 제개정 공대위 식구들이 앞서서 잘 해봅시다.

9월 27일 전국 대학 동시 다발 수요집회

0. 들어가며

92년부터 진행되어온 수요집회는 이제 한 번쯤 돌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랜 시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또 많은 성과를 내온 투쟁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끈질긴 투쟁의 성과가 이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제철폐 국제법정(아래 2000년 법정)을 문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1. 의의와 목표

주소록에 추가

받은이 "Daum카페 전역대협 성폭력 규제 학회 제개정 공대위 회원" <>

2000년법정 일정(안)

일시와 시간 행사

12/7 (목) 개막식

10:30-12:30 참가단 출국

18:30-20:30 개막식(주관: 한국 정대협)

12/8 (금) 법정 첫해날

9:30-10:00 판사단에 의한 개회

10:00-11:00 국제감사단의 기소요지 발표

일본측 변론요지

11:00-12:30 일본의 책임

전문가증언: (1) 친황의 책임 / Mr. Herbert P. Bix

(2) 일본제국군대의 구조 / Mr. Hirofumi Hayashi

(3) 일본군 '위안부' 제도 / Mr. Yoshiaki Yoshimi

14:00-15:30 남북공동기소(1)

15:30-17:00 남북공동기소(2)

18:30-20:00 환영만찬(주관: 일본 바우넷 재팬)

12/9 (토) 법정 둘째날

9:30-11:00 대만 기소

11:00-12:30 중국 기소

14:00-15:00 전문가증언: (1) 국가책임 / Mr. Frits Kalshoven

(2) 배상과 처벌 / Mr. Theo van Boven

15:00-16:30 필리핀 기소

16:30-17:00 말레이시아 기소 (예정)

18:30-20:30 비디오 패스터발(미국 위안부 관련)(주관: 일본 바우넷 재팬)

▲별도 프로그램 "아시아 청년인권포럼"

12/10 (일) 법정 셋째날

9:30-11:00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공동기소

11:00-11:30 네덜란드 기소

11:30-11:45 일본인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 기소

11:45-12:15 전문가증언: 트라우마 (예정)

14:00-14:30 가해자 증언(전 일본군인)

14:30-14:45 전문가증언: 일본군인의 멘탈리브에 대한 증언 / Ms. Mayako Inoue

14:45-15:15 전문가증언: 첼더와 인종차별주의의 관점 / Ms. Gay McDougall

15:15-15:30 일본 변호인 반론

15:30-16:30 국제감사단 최종기소

16:30-17:00 판사단의 발언 (예정)

18:30-20:30 세계인권의 날 기념 문화의 밤 'SAY YES' CONCERT(주관: 한국 정대협)

12/11 (월) 최근 무려갈동하의 성폭력에 관한 국제공정회

9:00-18:00 무려갈동하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12지역)

-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힘을 모으는 자리
- 2) 2000년 법정을 잘 성사시켜 실질화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신진, 공유 합의를 자리
-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계속되는 망동을 저지르는 일본에 대한 투쟁을 진행하고 이북의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교류의 발판을 자리

2. 신진의식화 조직화

1) 신진의식화

-2000년 법정에 대한 신진과 그에 대한 합의(법정이 모의법정이므로) 서명 운동을 합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진

-성명서를 채택하고 그것을 신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일본의 계속되는 망동에 대한 신진(중정여대협 건국위원회 반일자료로 인터넷 학생네트워크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2) 조직화

-각 대학에서 행동플러가 있을 것입니다. 행동플러 기간에 집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이며 학우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실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예)저장 찍기나 '위안부' 하루 재빨, 영상을 보기 등

-2000년 법정에 참가단을 조직합니다.

-2000년 법정에 이북 학생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모금운동을 함께 진행합니다.

3. 당일 행사 관련하여

1) 기본적으로 수요집회를 진행합니다. 집회 형식으로 준비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진전이나 신진 거리 행식으로라도 진행합니다.

2) 2000년 법정 합의 서명운동을 잘 진행합니다.

3) 성명서를 채택하고 성명서를 미리 신진해서 학우들까지 합의의 과정이 되도록 합니다.

4. 서명용지

정대협에서 제출한 서명용지를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스캔을 쓴 파일이라 흐릴 수도 있습니다. 참세상 문서 자료실과 완우물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늦게 올라갈 것입니다.

5. 성명서 채택

성명서 채택을 각 대학 총학생회 명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즉, 성명서 내용 아래에 전국 총학생회의 명의를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명서는 따로 따로 아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명서를 보시고 합의하시는 단위는 'vshy2' 참세상으로 매일 바랍니다. 지역대협은 연계가 잘 맞지 않는 총학생회 단위도 잘 조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2000년 법정 준비 진행 상황

구체적으로 2000년 법정 사이트 www.bibmal2000.org 를 잘 활용합니다.

민족사적 진한기를 개척하는 6기 전국여대생대표자회의의

대동들이 준비로 요즘 통신총화를 많이 못 하실 것 같아 메일을 보내니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제기해서 얼얼얼 준비합니다.

국제법정 구체적 일정입니다.

보낸날짜 2000년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07분 54초 +0900 (KST)

보낸이 "Daum카페 전역대협 성폭력 규제 학회 제개정 공대위 운영자" <qstjdvhvrfu@hanmail.net> 수신기부에 추가

18:30-20:30 '위안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의 만찬

(주관: 일본 바우넷 재팬)

▲별도 프로그램 남북교류(정대협 & 총대협)

한일 시민단체 간담회(의해자 지원단체들)

12/12 (화) 법정 넷째날

9:00-13:00 판사단의 판결 및 논쟁

13:00-15:00 기자회견

15:00-16:00 대보

16:00- 참가단 귀국

12/13 (수) 법정 이후

오전 전략회의(국제 NGOs, 시민단체들)

오후 조일수교협상과 관련한 남북일 여성포럼